“일자리 넘치는 고장·영산강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윤병태 나주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홍수 예방·강변시설 등 친수·여가 공간 조성
SRF 발전소·축산 악취 개선…경로당 180곳 돌봄·난임 부부 지원 등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공직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소회와 앞으로 3년간의 포부를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년은 나주 대전환을 기치로 삶의 질이 최고인 살기 좋은 행복 나주,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시정을 뜨겁게 응원해주고 누구보다 앞장서 참여해준 12만 시민과 공직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 시장은 “앞으로 3년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들이 나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비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가 정책을 나주의 사업으로 만들고자 어디든 누구라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며 시장으로서의 숨 가쁜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한 영산강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개막 ▲에너지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나주배·나주쌀 등 농산물 국내·외 판로 확보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안 합리적 대안 마련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한 명품 교육도시 인프라 준비 ▲경로당 입식테이블·의자 보급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윤 시장은 나주평야를 적시며 나주를 키워낸 영산강은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영산강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홍수 예방을 비롯한 강의 치수·이수 기능 강화는 물론 수질환경 개선, 강 저류지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국가정원과 강변스포츠시설 등 친수·여가 공간 조성으로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나주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조성하는 국가산단인 에너지국가산단은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의 백년대계 구심점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밝혔다.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발전소·축산악취·상가공실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현안에 대해선 “갈등과 대립, 방치가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신규 복지시책 성과도 두드러진다.

‘모든 마을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추진’, ‘치매 예방·극복을 위한 100세 안심 경로당 180곳 지정·돌봄 관리사 파견’, ‘만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무상 지원’, ‘보호자 긴급 상황에 대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실현했다.

여기에 인구소멸과 저출생에 대응해 ‘출산 지원금 거주 조건 폐지 지원·난임부부 시술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 전후 모든 임신부 가사 돌봄 인력 파견’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다양한 출산친화 시책도 성과로 꼽힌다.

윤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모든 정책의 최종 접점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세대들이 나주에서 일터를 얻고 장착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자”고 당부했다.

윤시장은 또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공감하는 시민 감동 행정 서비스 실천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나주의 비전과 정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우수 시책 배우자” 경남 거창군 벤치마킹

만원 임대주택·직원 5분 스피치
다문화 여성 채용 등 시책 열람

화순군 우수 시책을 배우기 위해 온 경남 거창군청 대표단이 군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의 3대 우수 시책을 배우기 위해 경남 거창군이 화순을 찾았다.

거창군은 지난 28일 화순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우수 시책들을 살펴봤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가 월세 1만원을 내면 최장 6년까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만원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청년층 유입 대책으로 마련한 만원 임대주택은 지난달 18일 입주자 추첨식에서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5개국 다문화 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다문화 가정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 ‘직원 5분 스피치’를 만들어 신선한 조직 문화 변화를 꾀하고 있다. 거창군 방문단은 다문화 팀 사무실과 화순군 가족센터, 만원 임대주택 현장(부영아파트) 등을 둘러봤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만원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퍼져야 할 우수시책이므로 거창군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전남 첫 모든 CCTV에 AI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장성군이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남도내 최초로 지역 내 모든 폐쇄회로(CC)TV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분석한다. 사람과 차량 식별·동선 추적, 인상착의를 활용한 미아·치매노인 찾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재·범죄 폭력 등 이상행위 자동 감지가 가능하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검색된 차량번호를 화면에 띄워 관제 요원에게 즉각 알려줌으로써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장성군이 운용 중인 CCTV는 460곳, 1400여대 규모로 군청 관제센터와 연동돼 있다.

장성군은 전체 CCTV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황 발생 시 관제요원들이 녹화된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녹화본은 물론 실시간 영상에서도 사람·차량·사건현장 모습 등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확인된 영상은 경찰서, 소방서 등과 공유해 각종 사건·사고발생 시 초동 대처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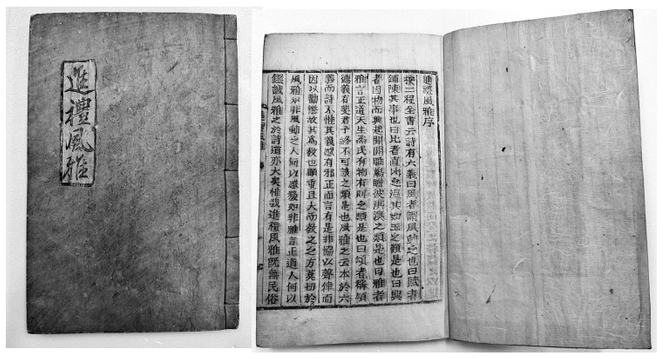
실제 시스템 구축 이후 실종자·치매노인 구조, 음주운전자, 농산물 절도범 검거 등의 실적을 거둬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일제강점기 시집 ‘진례풍아’ 향토문화유산 지정

당시 학교면 진례 주민들 시 모임
6년간 250여 수 발간한 시집
함평에 전해지는 유일한 원본



함평군이 일제강점기에 지역에서 나온 ‘진례풍아’(進禮風雅·사진)를 지역 향토문화유산 3호로 지정했다.

‘진례풍아’는 학교면 진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말 6년여간 22회 시 모임을 가지면서 나눈 시 250여 수를 발간한 시집이다.

진례시사(進禮詩社)는 지난 1944년부터 1949년까지 운영된 함평군의 유일한 시사이다.

시사는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를 나누던 풍류의 장소이자 모임을 말한다.

해당 시집은 함평에 전해지는 유일한 진례풍아 원본이다.

진례시사에 직접 참여하고 책자 간행 당시 서문을 쓴 후손가가 보존해온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함평군 측은 설명했다.

또 시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됐던 학교면 진례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다. 후손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진례풍아를 발간하는 등 보존 및 전승 의지도 높다.

일제강점기 말 어려운 시국에도 시사를 결성해 전통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려 했던 진례시사의 설립 정신이 광복 뒤에도 이어져 ‘진례풍아’로 간행됐다는 점에서 함평 향토문화사 연구에 있어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소장자인 신희상씨에게 기탁받은 진례풍아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3호로 지정된 진례풍아를 포함해 1호 월산사·유허비, 2호 자선서원 등 총 3건이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작품

오는 2025년 준공할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

강진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지는 강진군 종합운동장 남측으로 확정했다. 국비 30억원과 군비 53억원 등 총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지어지며, 체육관과 운동처방실, 장애인 교육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강진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설계 공모에는 서울 소재 건축사사무소 3곳 등 총 7곳이 참여했다.

강진군은 대학 교수와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작품〈조감도〉을 뽑았다.

앞으로 강진군은 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과 재활을 위한 운동처방실 등을 확보해 장애인의 숙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 봉산면에 ‘봉산문화쉼터’ 개관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교육·문화·복지·경제 서비스

담양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봉산면에 ‘봉산문화쉼터’를 만들고 최근 개관했다.

봉산문화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농촌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봉산문화쉼터는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담양군은 지난 2018년 신규 사업에 선정된 뒤 올해까지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 봉산문화쉼터 등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중심지 진입도로를 정비했다.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옛길도 복원했다.

지난달 말 열린 준공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 이규현 전남도의원, 담양군의회 조관훈 의원, 장명영 의원, 최형식 전 군수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노 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진병준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봉산면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봉산문화쉼터가 앞으로 봉산면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가족센터, 11월까지 ‘엄마나라 말 학습교실’ 운영

나주시가족센터가 오는 11월까지 ‘엄마나라 말 학습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능력, 이중 문화감수성을 확대하고 긍정적 정체감 형성과 엄마나라와 우리나라간 두 나라를 잇는 인재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교실은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일본어 시민반, 중국어 자녀반(초·중급)을 운영 중이며 지난 4월부터 베트남어 자녀반이 추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베트남어 자녀반은 7~10세 16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2시간 동안 센터에서 베트남어·베트남 문화에 대해 수업 중이며 11월까지 총 20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양진 나주시가족센터장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나주 전체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 출신 부모의 초등학교 자녀 인원수가 40% 비율로 가장 높고,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요구가 높아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다”며 “교육 참여 학생은 나주 또는 전국의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